

05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이 종 철

전북대학교박물관

- I. 머리말
- II. 유적의 분포와 연구 성과
- III. 문화적 특징
- IV. 맺음말

만경강유역권 청동기시대 문화

이 종 철 (전북대학교박물관)

I. 머리말

만경강 유역권이 독자적인 고고학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전북혁신도시 일원의 발굴조사 성과라고 하여도 무리는 아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쪽의 미륵산에서 남쪽의 모악산 사이에 펼쳐져 있는 분지형 공간을 ‘만경강 유역 문화권’으로 설정(최완규 2016: 11)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문화권의 성격은 청동기와 철기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철기시대의 문화상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에도 독자적인 문화집단 또는 지역집단으로 대표되는 문화상의 존재를 설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경강은 전라북도 동쪽에서 서쪽을 가로지르는 74km의 전형적인 곡류하천이며, 대조(大潮) 시에는 삼례부근까지 하천 수위가 상승하는 감조하천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진안군과 완주군의 경계에 있는 운장산 자락의 동상면 사봉리 밤샘에서 발원하여 완주, 전주, 익산, 김제, 군산을 거쳐 서해로 흘러든다. 강의 상류는 산악지대를, 중류와 하류는 야트막한 구릉지대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류는 전라북도를 남북으로, 지류는 동서로 가르는 지형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형세는 강의 남쪽과 북쪽에 펼쳐진 평지(저지대 포함)를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하여 다양한 문화집단의 시대별 양상을 시공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밭 100이랑을 뜻하는 경(頃)이 만(萬)개나 되어 100만 이랑을 뜻하니, 기름진 농토로 펼쳐진 드넓은 곳[萬頃]이라는 의미와 잘 맞닿아 있다.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지난 2016년(호남고고학회)과 2019(한국청동기학회)년에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이미 논의되었다. 그 시간축은 청동기시대 초기~점토대토기문화 단계로 우리나라 고고학 편년상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또는 철기시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19년~2020년 사이에 특별한 유적의 조사 성과가 없는 한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연구를 대표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거나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재검점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발표자는 2019년 만경강 학술대회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연구자들의 주장과 그에 따른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고, 2020년에 실시한 황방산 일원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와 2019년~2020년 사이에 조사된 유적들에서 확보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좀 더 밀도 있게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번 발표의 시간적 범위는 청동기시대이며 초기~후기의 4분기를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동서로 형성된 만경강 본류와 남쪽 및 북쪽에 각각 형성된 각 지류들을 모두 포함한다. 그 북쪽 경계는 만경강의 지류인 탑천과 금강의 지류인 산북천 사이로, 남쪽 경계는 신평천-(김제)-두월천으로 설정한다. 강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류권·중류권·하류권으로 구분하고, 하천과 하천이 경계를 이루는 공간을 구역화하여 고고학적 양상을 대조하기 위한 섹터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유적의 분포와 연구 성과

1. 유적의 분포

1) 만경강 유역의 공간적 구분

만경강은 동부 산악지대의 계곡을 따라 서진하여 봉동에 이르는 구간을 상류권, 봉동에서 만경대교(고척천과 탑천 합류지)까지 사행하는 구간을 중류권, 만경대교에서 서해 초입까지를 하류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圖 1).

表 1. 만경강 유역의 공간 구분

구분	만경강				
	하류권		중류권		상류권
구간(W-E)	서해 초입~탑천		탑천~봉동		봉동~동상면 밤샘
지형적 특징	저지대, 독립 산지 간석지		평지성 구릉, 저지대 사행곡류		산악지대 계곡, 곡간평지
문화권(N-S)경계		탑천-용암천		미륵산-봉실산-모악산	
구역	N5		N4, N3, N2, N1		E
	S5		S4, S3, S2, 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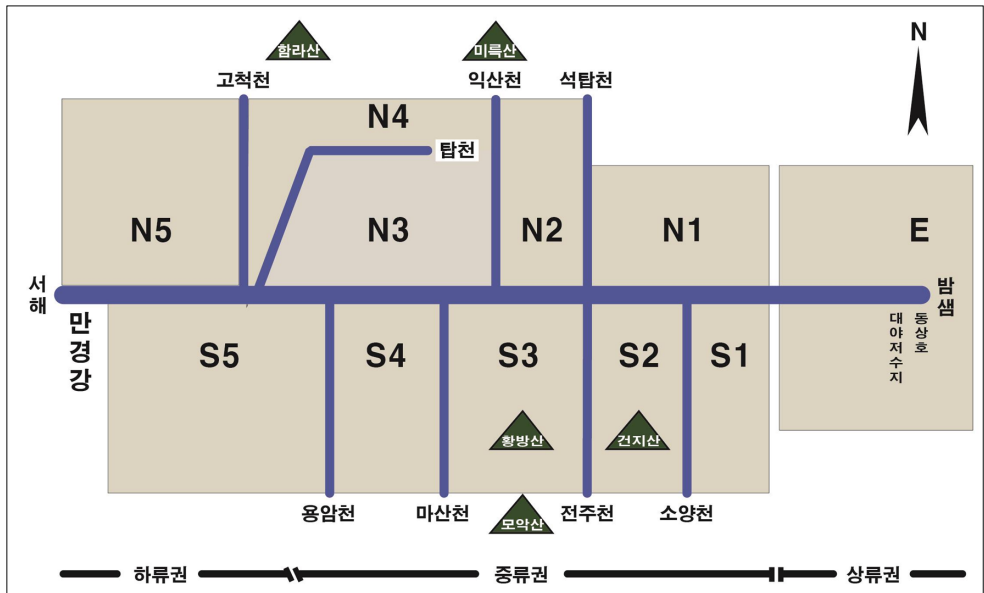


圖 1. 만경강 유역권의 수계별 구역 설정

만경강 유역권은 본류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형성된 다양한 지류가 공간을 구획함으로써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수계권을 고려하여 북쪽은 미륵산을 경계로 금강의 지류인 산북천 유역 이남을, 남쪽은 신평천-김제시-두월천(월평천의 지류)을 경계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북쪽은 서쪽으로부터 고척천·탐천·익산천·석탑천에 의해, 남쪽은 용암천·마산천·전주천·소양천에 의해 구역이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탐천의 북쪽 지역(N4구역)은 만경강 유역권과 금강 유역권(논산권)의 복합적 양상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圖 1).

2) 유적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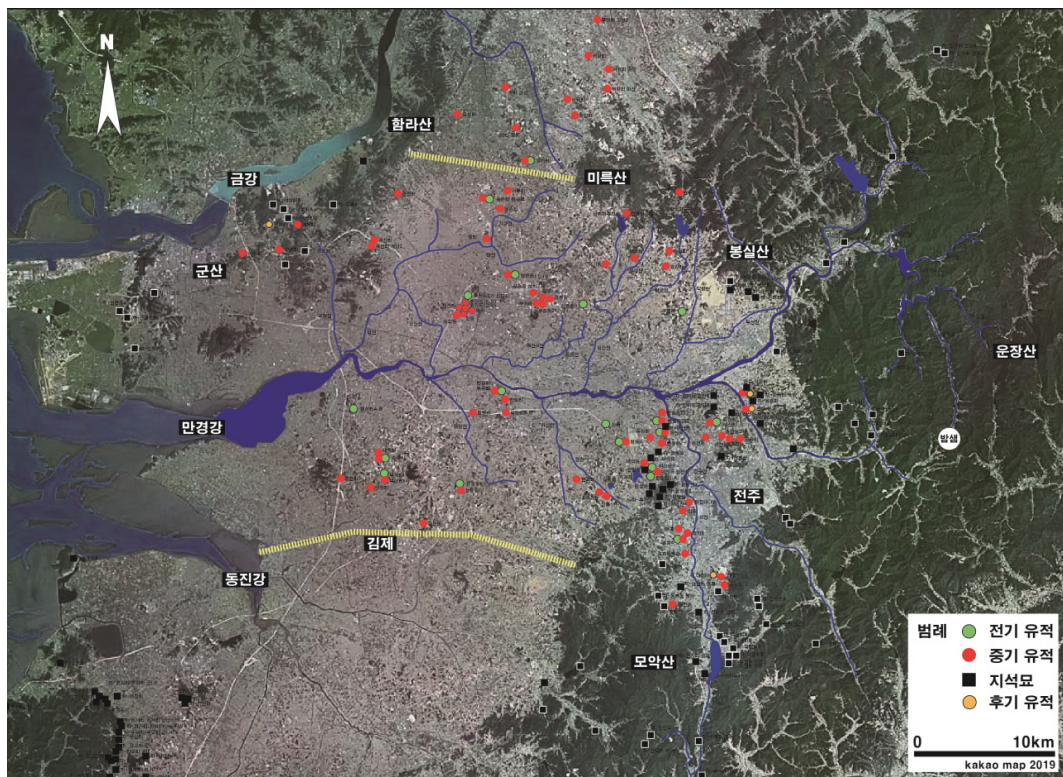


圖 2.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

만경강 유역권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수혈·구상유구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유적과 지석묘·석관묘·석개토광묘·토광묘·옹관묘 등의 매장유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圖 2]는 생활유적과 지석묘 유적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생활유적은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분류와 지류에 의해 구분되는 구역 설정을 도식화한 [圖 1]과 [圖 2]를 바탕으로 유적의 분포 및 취락의 공간 분포와 밀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취락은 주로 중류권에서 확인되며, 상류권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하류권에서는 김제권(S5)에서만 확인되며, 군산권(N5) 일부에서 극히 소규모로 발견된다.

둘째, 전기 유적은 주로 익산권(N3·N2)·김제권(S5)·전주권(S3)에서 확인되지만, 밀집도는 낮은 편

이어서 점상분포와 같다. 반면 중기 유적은 봉동 일원(N1)과 상류권(E)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확인된다. 그만큼 전기에 비해 취락 점유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지점별 밀집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후기 유적은 전기 유적보다도 월등히 적은데, 삼천 일원(S3)·소양천 일원(S1)·군산권(N5)에서 소규모로 확인된다. 따라서 유적의 점유도는 중기>전기>후기로 파악된다.

셋째, 취락의 상대적인 점유도는 전주천-황방산-삼천 일원인 S3구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전주 송천동 일원(S2)과 익산 일원(N3)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圖 2). 따라서 만경강 유역권에서 S3구역은 취락의 점유가 가장 활성화된 곳이며, 전주천과 삼천을 따라 일방형의 지역연계망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表 2.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시기별·구역별 취락 분포 현황

구역 \ 시기	청동기시대 유적				
	조기	전기	중기	후기	
N5 (군산권)			군산 여방리 군산 고봉리Ⅱ,D 군산 아동리	군산 도암리	
N4 (서수-황등권)			군산 축산리 군산 관원리 익산 읍촌리 익산 보삼리	군산 축산리 계남2 익산 서두리1,2 익산 읍촌리 분구묘	
N3 (익산권)		익산 영등동Ⅰ,Ⅱ,Ⅲ 익산 모현동2삼다리 익산 신동리1	익산 장신리 익산 모현동(창고) 익산 학동 익산 석치고개 익산 부송동2 익산 팔봉동 익산 덕기동	익산 송학동 익산 모현동(교회) 익산 묵동 익산 영등동Ⅰ,Ⅱ,Ⅲ 익산 부송동 익산 부평Ⅰ,Ⅱ	
N2 (왕궁권)		완주 구암리	익산 왕궁리 익산 홍암리 익산 원수리	익산 광암리 익산 신용리 갯점	
N1 (봉동권)					
S5 (김제권)		김제 세상리A,B 김제 수록리C 김제 부거리Ⅰ 김제 상동동Ⅰ	김제 장산리 김제 내죽리 김제 양청리 김제 상동동Ⅲ	김제 수록리C 김제 부거리Ⅰ,Ⅱ 김제 김산동	
S4 (백구권)		김제 반월리·부용리	김제 반월리·부용리 김제 석담리B,D	김제 월봉리	
S3 (황방산권)	?	전주 성곡 전주 장동Ⅱ 전주 반월동265 전주 동산동 전주 여의동1 전주 원만성1,(A?) 전주 효자4	전주 반월동222-5 전주 동산동 전주 반용리 전주 팔복동 전주 만성동·여의동 완주 반교리 전주 마전Ⅲ·Ⅳ 전주 봉곡 전주 효자4 전주 대정 전주 평화동	전주 반월동265 전주 유상리 전주 장동Ⅱ 전주 여의동先史 완주 신평-가 완주 옥정B 전주 척동 전주 효자5 전주 효자동복합 전주 중인동	전북혁신도시 일부(정문동, 중동 등) 전주 대정Ⅳ

시기 구역	청동기시대 유적			
	조기	전기	중기	후기
S2 (견지산권)		전주 필천리·오산리	전주 필천리·오산리 전주 송천동2가 전주 오송리	전주 송천동 전주 송천동97-20
S1 (용진권)			완주 상운리	완주 윤교
E (고산권)				완주 상운리 완주 윤교

넷째, 지식묘는 만경강 중류권의 구릉·평야지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군산 일원의 야산(N5), 봉동의 봉실산 일원(N1), 전주의 황방산 일원과 삼천 일원(S3), 소양천 일원(S2·S1), 상류권의 고산천 일원(E)에 분포한다. 익산 지역에서는 지식묘가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분포로 볼 때 만경강 유역권의 지식묘는 중류권의 낮은 구릉지대와 평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야산이 있는 서쪽의 군산 일대와 동쪽의 전주·완주 일대에서 보편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경강 유역권에서 청동기시대의 문화적 전통성과 지속성은 전주천-황방산-삼천(S3구역)에서 나타난다. 초기문화의 전통성을 계승한 전기 단계 유적(동산동)을 비롯하여 가락동유형과 혼암리유형 단계의 문화상이 활성화되었고, 중기문화의 폭발적인 변성을 이루다가 소규모의 후기문화가 확인되는 구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1년 집계에 근거할 때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의 중심지는 S3구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앞으로 익산권인 N3구역 일원에서 특별한 유적이 조사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결과로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유적의 시기별·구역별 분포 현황을 정리하면 [表 2]와 같다.

2. 연구 성과와 문제 제기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에 대해서는 2016년과 2019년에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여기에서 제기된 주요 연구 성과를 정리해보고, 문제점이나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는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초기 문화요소의 존재 확인

전주 동산동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김규정(2016: 83-88)은 미사리유형 취락과 가락동유형 취락으로 구분하였다(圖 3).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를 구분의 근거로 삼았다. 그 시기는 2900B.P.를 전후(기원전 1300~1000년)한다고 하였다. 천선행(2019: 28-30) 역시 동산동의 미사리유형 취락을 전기에 두고, 익산 영등동과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김규정은 초기 단계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 천선행은 초기 단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둘의 공통점은 이러한 편년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산동 미사리유형의 시간적 위치를 전기에 둔 것이다.

이에 반해 김승옥(2016: 39)은 동산동의 미사리유형 취락을 초기 유적으로 판단하고 초기 후반에 등장하여 전기 전반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보았다. 이는 초기 단계 설정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유형이 시기차를 두고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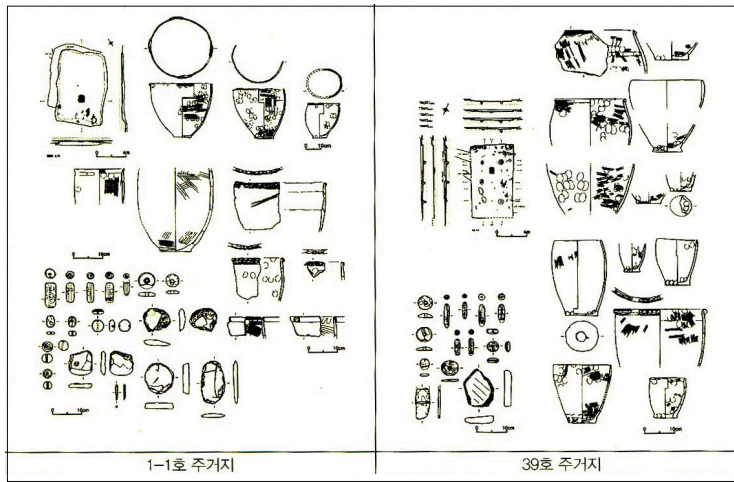


圖 3. 전주 동산동 전기 취락(김규정 2016)

만경강 유역권의 초기 단계는 획기 설정도 중요하지만, ① 돌대문토기문화로 대표되는 미사리유형의 전통을 확인한 점(익산 모현동2가 섬다리, 익산 영등동, 전주 동산동), ②미사리유형이 전기 단계까지 존속한 사실을 재확인한 점, ③좀 더 이른 시기로 소급되는 초기문화의 존재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핵심은 동산동 유적을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으로 구분한다면 가락동유형의 정체는 무엇이고, 주거 형태(39호: 위석식노, 장축 2열 주공 등)와 복합 양상을 중심으로 어떻게 두 유형의 취락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늦은 시기의 미사리유형을 주체로 본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천해 갔는가? 또는 어떻게 문화요소들의 복합(주거형태, 토기 등)이 이루어졌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고고학적 접근과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2) 전기 단계 문화집단의 정체 파악

만경강 유역권에서도 전기 단계에 해당하는 많은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돌대문토기를 중심으로 이중구연과 구순각목문토기가 발견되는 1군/ 이중구연단사선계의 토기가 발견되는 2군/ 이중구연단사선문계 토기와 공열문 요소가 함께 발견되는 3군/ 세장방형의 대형주거지가 발견되는 4군으로 구분하거나(김승욱 2016: 40), 미사리유형과 가락동유형으로 대별하고 극소수의 역삼동유형 요소의 혼입으로 보거나(김규정 2016: 87), 토기문양상 돌대문계/가락동계/역삼동·혼암리계가 확인되지만 가락동유형이 압도적이고, 역삼동유형의 존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가락동유형의 변화에 따른 양상이라는 견해(천선행 2019: 29-30)로 정리된다. 특히 한 유적 당 주거의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분포하는 소규모 유적들이 많아 취락 규모의 현저한 차이 및 유기적인 관계성, 취락 간 위계 관계 등이 뚜렷하지 않다는 특징(천선행 2019: 30)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기의 생업체계는 집약적 수전농경보다는 곡간의 저지대를 이용한 소규모 농경과 수렵·채집·어로가 조합된 혼합경제방식을 영위했을 가능성과 소규모 집단들로 하여금 이동성 농경취락의 점유방식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김승욱 2016: 42).

아무튼 전기 취락의 주체는 가락동유형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대세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만경강 유역권의 전기 단계는 늦은 시기의 미사리유형과 대부분의 가락동유형 또는 가락동유형의 변화형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13~10세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김규정은 대부분의 전기 유적을 가락동유형의 취락으로 간주한 반면, 천선행 역시 이에 동의하면

서도 나름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만경강 유역권의 가락동유형은 금강 유역권의 가락동유형과 관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금강 유역의 가락동유형에 온전히 포함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락동유형으로 볼 수 없는 문화요소들이 복합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지배적인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금강 유역의 주민들이 이주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토착민과의 관계를 통해 변형이 발생했다고 해석하였지만, 정작 ‘토착민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발표자의 생각으로는 금강 유역 가락동유형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 토착민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만경강 유역권 어디엔가 역삼동유형 등의 집단 또는 문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상통하므로 결국 A+B관계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그 시점이 금강 유역 어디쯤에서부터였거나 만경강 유역에 와서였거나 간에 이미 두 문화의 복합양상으로 전환된 상태라는 것은 자명하므로 온전한 가락동유형의 설정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가락동유형으로 대표되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거 내부시설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은 만경강 유역권의 이른 시기(1기)에 해당하는 가락동유형의 주거가 역삼동유형 주거의 내부시설이라는 점에서 공열토기(발표자는 역삼동유형)의 부재를 단정지을 수 없다(홍박음 2010: 30)는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다시 말하면, 김규정과 천선행이 제시한 가락동유형 취락의 일정 부분은 역삼동유형과 복합화 과정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혼암리유형의 형성 단계 또는 이미 진입한 단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A+B=C라는 도식은 무리이겠지만, 혼암리유형을 탄생시키는 두 문화의 복합화 과정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각 전개 및 혼암리유형의 전개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존재 속에서 그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와는 별도로 혼암리유형의 전개를 같은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이종철 2015b: 151) 한다. 이는 전주 동산동 취락에서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주거(39호)가 왜 가락동식주거인가에 대한 의문과도 통하는 것이다.

혼암리유형을 인정하지 않고 역삼동·혼암리유형으로 통합하거나 역삼동유형으로 간주하는 연구들이 대세이지만, 엄연히 구분된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단위(문화요소 등)를 고려한다면 복합화 양상 등의 문화변동으로 나타나는 혼암리유형 또는 그러한 고고학적 양상의 단계 설정은 간과할 수 없다(이종철·정다운 2020: 326). 이는 A+B의 결과가 C일수도 있고 AB 또는 Ab 또는 Ba일 수도 있다. 융합적 관계로 변화될 수도 있고, 단순 교류를 통해 문화요소만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융복합은 되었지만 집단에 따라 물질문화상의 지배적 양상은 대등할 수도, 각각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이 시기와 지역을 달리한다면 그 경우의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은 자명하다.

3) 전기 단계 취락의례의 확인

전기 단계의 취락에서 의례 또는 제의와 관련되는 유구의 존재는 매우 드물었다. 그런데 2010~2011년에 완주 구암리(군산대학교박물관 2013)에서 방형의 환구를 갖춘 제의유구가 조사되었다. 구릉의 정상부에서 개구부가 있는 방형의 환구가 확인되었고, 그 중앙부의 제의유구에는 할석과 소토층이 반복적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할석들에서 불에 그을린 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불과 관련된 제의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내부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

문 토기와 구순각목문 토기가 확인되었다. 유적에서 검출된 탄소연대는 2940 ± 30 B.P.(제의유구)와 2930 ± 30 B.P.(환구)로 나타났다. 조사자는 환구와 가락동유형의 주거가 공존하는 시기, 환구가 폐기된 후 역삼동·혼암리유형의 주거가 등장하는 시기로 구분하였고, 김규정의 편년(전기Ⅱ기)을 인용하여 기원전 11~9세기로 판단하였다.

제의유구의 조사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였지만, 방형의 환구를 갖춘 제의유구가 과연 가락동유형 단계(1단계)에서만 존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조사자는 2단계에 1단계의 중첩이 없는 주거들이 지속되었는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고 보았다. 김규정(2014: 30)은 1단계의 주민들만이 제의유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출토유물상 공열토기의 존재와 주거지 중첩이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지만, 1단계와 2단계에 지속적으로 공반되는 특징적인 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취락의례가 환구의 일부 폐기만으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구암리 취락은 ①토기상으로는 가락동유형이 지배적이지만, 주거 구조와 시설은 역삼동유형의 전통이며 실제로 4-1호에서 공열토기가 출토되었다. ②1단계와 2단계는 단절적인 관계가 아니라 취락의례에서 환구+중앙부 의례유구가 공존하던 시기와 환구가 전부 또는 일부 폐기되고 중앙부 의례유구가 사용되는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거의 동일한 토기문화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돌기형 꼭지가 붙은 발형토기의 존재를 들 수 있다. ③구암리 취락이 온전한 가락동유형 취락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주거 내부시설과 공열토기의 존재에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복합화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4) 중기 단계의 거점취락 확인

만경강 유역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거점취락이 전주천 하류역에서 조사된 점이다. 바로 동산동 유적인데, 만경강 유역권에서 이 유적과 대등하거나 규모를 증가하는 유적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다. 향후 익산권(특히 N3구역)에서 조사되지 않는다면 진안 여의곡 유적과 더불어 전북의 동서를 대표하는 거점취락으로 상정할 만하다.

발표자(2015a: 280-281)는 거점취락을 중심취락, 중핵취락 등과 대등소이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 ①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근거지(충적대지 등)에 입지, ②규모·인구·사회체제·경제적 기반에서 상위취락으로서의 역할, ③위성취락과 같은 중·소규모 취락들의 존재, ④풍족한 자원을 바탕으로 분업화·전문화된 조직체계를 이룬 고도의 인적 구성, ⑤공간의 영역화(주거·생산·매장·저장·의례 등), 주거의 체계적인 배열, 무덤의 기획적 축조, 대규모 곡물 재배, 잉여의 관리체계 등 조직적으로 발달된 사회체제, ⑥유기적인 협력관계와 전달체계가 구축된 지역연계망의 형성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보유한 취락은 지역별로 존재하며, 일반취락들과 함께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다.

表 3. 전주 동산동 취락의 공간 구성(이종철 2019)

대취락	주거영역		생산영역	매장영역	저장·보관영역	
동산동 취락	북 취락	남 취락	천변 쪽에 발(?)	• 전주천변 쪽 용관묘군(12) 토광묘군(11) • 북취락의 북쪽 650m 지점에 지석묘(1) • 주요 매장지는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	서군	동군
	단위주거군5	단위주거군6			관리 주86	관리 주76
	단위주거 ○□	단위주거 ○□			굴립주 10	굴립주 1
	대-중-소	초대-대-중-소			독립된 위치	남북취락 공동
	굴립주건물	-			광장 내 5개 수혈- 2개의 방향성	
	평지 배경	저습지 배경				
	군집분포	열상·군집분포				
	광장을 중심으로 열상·환상분포 광장 직경 50m			의례영역		
	광장 서쪽으로 큰 골목(폭 25m)			공동의 장소 : 취락의 중심부 특정 제의영역의 존재 가능성(?)		
	광장 서·동쪽으로 저장·보관영역			제사유구(?) : 북→남 5개 수혈 시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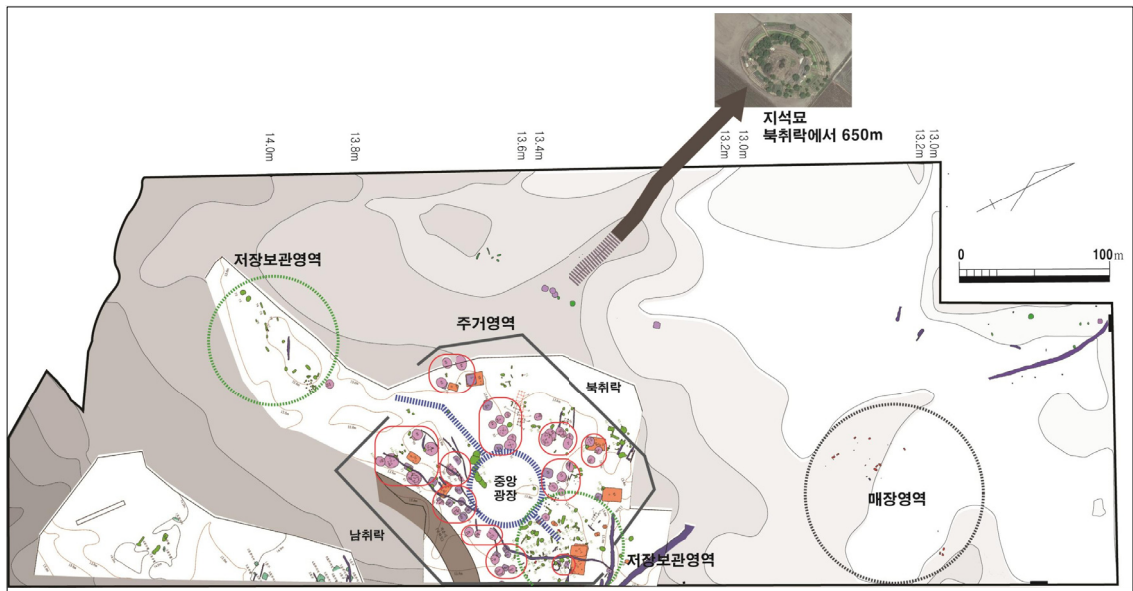


圖 4. 전주 동산동 취락의 공간 구성(이종철 2021)

동산동 유적의 기본적인 취락 개념은 이미 제시된 바 있지만(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이를 좀 더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취락구조의 관점에서 살펴보면(表 3)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추출할 수 있다(이종철 2019, 2021). ①송국리형문화 발전기의 취락으로서 기원전 7~6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북

서부 지역의 거점취락, ②범람원인 전주천변과 특정 저습지(구하도?)를 배경으로 취락지 선택, ③1개의 대취락 내 2개의 단위취락(남/북)-광장-골목(大·小)-저장·보관영역-매장영역의 취락설계, ④단위취락 내 단위주거군(세대/가구 관계)의 결속력 유지, ⑤주거의 초대-대-중-소 체계 구축, ⑥제의 등과 같은 공동체의식을 고무하는 구심점으로서 마을 중앙에 광장 설계, ⑦저장·보관영역 관리체계 유지 등을 추출할 수 있다. 특히 ⑧지석묘가 평지성의 낮은 능선을 따라 650m 지점에 있는 난산형(卵山形)의 독립 구릉에 구성되어 있어 특정 유력자를 위한 매장지와 옹관묘·토광묘 중심의 매장영역이 분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⑨난산의 독립 구릉으로 연결되는 낮은 능선의 존재를 통해 취락민들의 삶터와 유력자의 매장지를 연결해주는 광의 개념의 묘도(墓道)를 상징할 수 있다(圖 4). 무엇보다도 ⑩우리나라에서 조사된 송국리형주거 가운데 최대 규모를 이루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위가 동산동 취락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인 67호(60.7㎡)는 2개의 타원형구덩이와 6주가 설치된 증축·확장형 주거이고, 두 번째인 68호(59.5㎡)는 4주형이다. 68호는 기본 4주형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이러한 건축기술은 전문기술자(장인)의 존재와 취락사회의 발전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판단된다.

동산동 거점취락은 전주천변의 하류역에 위치하는 대단위 충적대지를 배경으로 입지한다. 취락은 해발고도가 13~14m인 완만한 평지성 구릉상에 위치하는데, 본디 황방산으로부터 뻗어내린 완만한 줄기가 만성동-팔복동을 거쳐 동산동까지 이르는 최말단부에 해당한다. 앞 시기에 점유했던 돌대문토기문화의 취락과 동일한 지점이라는 점에서 주거영역으로서의 환경적 가치를 상징할 수 있다. 황방산 일원을 비롯하여 전주천과 삼천에는 기원전 7~6세기에 해당하는 중·소규모의 송국리형취락들이 밀집 분포하고 있어 동산동 취락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연계망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이종철·정다운 2020: 336-339).

동산동 취락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 또는 과제도 있다.

첫째는 매장영역에 함께 조성된 토광묘군과 옹관묘군 중 옹관묘군의 성격이다(圖 5). 옹관묘로 활용된 토기는 전기 단계로 인식되고 있는 직립구연호인데, 과연 돌대문토기문화 집단의 옹관묘인지 아니면 소규모 가락동유형 집단의 무덤인지 또는 송국리형취락의 무덤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옹관묘가 전기에 해당한다면(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두 문화 집단 중 어디에 귀속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고, 송국리형취락에 귀속된다면(호남문화재연구원 2015, 이종철·정다운 2020) 옹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는 매장영역의 존재가 취락 규모에 비해 소략하다는 점이다. 취락의 점유기간을 고려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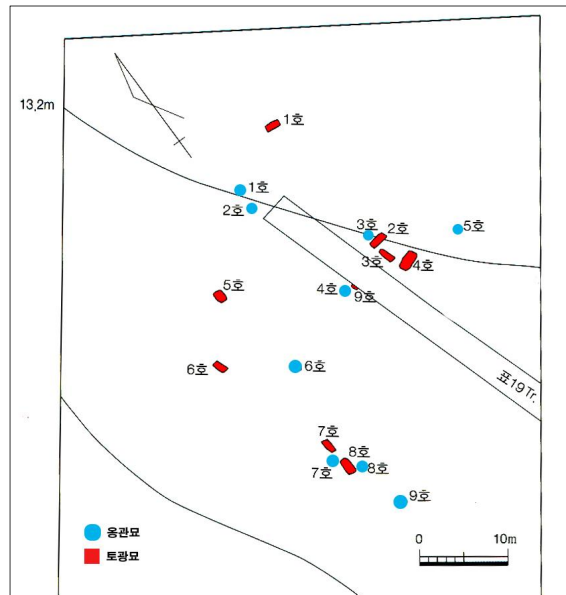


圖 5. 동산동 취락의 옹관묘·토광묘 묘역

지석묘군이나 송국리형 묘제(석관묘, 석개토광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매우 의문스러운 일이다. 비록 최근에 북취락에서 북쪽으로 650m 지점에 있는 난산형(卵山形)의 독립구릉 정상부에서 1기의 지석묘를 새로 찾았기(이종철·정다운 2020) 때문에 유력자 무덤의 존재는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圖 4 참조), 그 이상의 유력자 무덤과 석관묘·석개토광묘의 존재를 밝혀내는 것이 남아 있다. 황방산 일원의 지석묘가 발굴조사되지 않아 아직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발표자는 황방산 정상부와 주변에 밀집분포하는 기반식 지석묘들이 동산동 취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만성동·여의동 취락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동산동 취락이 주거의 분포와 취락 체계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은 사회적 위계를 설명하는 데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한다.

5) 청동기시대 무덤의 현황 파악

만경강 유역권을 대상으로 청동기시대 무덤이 정리되어 전반적인 양상이 파악되었다(천선행 2019: 37-38). 그에 의하면, 지석묘의 비중은 전북권 내에서 낮은 반면 석관묘·석개토광묘·옹관묘 등 송국리형 묘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익산권에서는 석관묘·옹관묘·토광묘·석개토광묘가, 군산권에서는 석관묘·옹관묘, 전주와 완주권에서는 익산권과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옹관묘가 감소하고 석개토광묘가 증가한다. 김제권에서는 옹관묘·토광묘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취락마다 선호하는 묘제가 달랐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해석은 만경강 유역권이 금강 유역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즉 금강 중하류 지역(송국리형문화권의 중심지 또는 형성지)에서는 송국리형 묘제의 분포가 현저한 반면, 지석묘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서해안 지역이나 금강 상류 지역(주변부)으로 갈수록 두 묘제가 혼합되거나 지석묘가 비로소 활성화된다는 견해(김승옥 2001: 57-60)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송국리형 묘제와 지석묘의 관계를 중심부와 주변부의 순수-복합의 관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두 문화요소의 원천적인 관계성은 불명확하지만,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국지적인 현상으로 볼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유적들에서 송국리형 묘제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국지적인 양상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송국리형문화의 파급 속도와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지석묘-송국리형문화 간 융복합 관계가 파급·전파·이주 등의 흐름상 자연스럽지만은 않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

6) 후기 취락의 불명확성과 재인식의 필요

만경강 유역권의 대표성은 청동기와 철기문화에 있다. 초기철기시대로 인식되는 문화 단계의 물질문화들이다. 이러한 초기철기시대 문화의 융성에 청동기시대 후기 단계를 넘기지 못하는 것은 궁색하고 어색하기 이를 데 없다. 만경강 유역권 청동기시대문화에서 초기~중기까지만 거론되고 후기가 빠져 있거나 초기철기문화와 혼합 또는 점토대토기문화로 통합하여 논의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취락의 존재를 설정하여 논의하려는 것은 만경강 유역권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의 토착집단과 재지문화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의 후기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로 대표된다. 이 토기문화는 요령 지역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집단의 결과로 보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이미 정착한 재지집단의 관점

에서는 외래문화가 된다. 그 시기는 기원전 8세기대까지 올려 보기도 하지만(이흥중 2006) 기원전 6세기(이창희 2010), 기원전 6세기 말~5세기 초(박진일 2007), 5세기대(이청규 2000, 中村大介 2008, 이형원 2011, 이종철 2015a 등), 기원전 4세기대(진영민 2016), 기원전 4~3세기(이건무 1994) 또는 300년경(박순발 1993)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시기적인 차이는 탄소연대, 형식학적 접근, 그리고 정가와자 유적의 연대, 역사 기록 등에 근거한 연구자들의 편년관에 기인한다.

발표자(2015a)는 청동기시대 후기를 기원전 5~4세기로 구분하고, 남부 지역은 기원전 3세기까지 보는 입장이다. 기원전 3~2세기는 청동기문화의 바탕에 철기문화의 유입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기원전 2세기는 철기시대에 해당한다. 남북으로 형성된 한반도에서 철기문화의 도입은 일시적이고 확실적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다 보니 기원전 3세기의 남부 지역은 여전히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금강 유역권과 만경강 유역권의 후기 단계는 기원전 5세기~3세기에 해당한다. 다만 원형점토대토기만 출토될 경우 기원전 5~3세기의 세부적인 구분이 쉽지 않고, 기원전 4~3세기의 원형점토대토기와 기원전 2세기대 일부에 해당하는 원형점토대토기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특별히 시기 구분을 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면, 기원전 2세기대에 해당하는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유적들도 청동기시대 후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만경강 유역권의 주요 후기 주거 유적은 완주 상운리, 완주 윤교, 전주 대정Ⅳ 유적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산 도암리 유적과 전북혁신도시 유적 일부(정문동, 중동 등)를 여기에 포함할 수 있겠다. 혁신도시 유적과 상운리는 방형 주거를, 윤교와 도암리는 송국리형주거를, 대정Ⅳ는 말각장방형의 주거를 사용하며, 공통적으로 원형점토대토기가 공반한다. 이들은 대부분 기원전 4~3세기를 전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①순수하게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방형계 주거로 대표되는 집단(상운리), ②송국리형주거에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요소가 복합되는 집단(윤교), 그리고 ③말각장방형계 주거와 송국리형문화 요소+점토대토기문화 요소가 복합된 집단(대정Ⅳ)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복합 양상으로서 늦은 시기까지 점토대토기문화와 송국리형문화가 공존했음을(이종철 2000·2015a·이형원 2005·2016)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군산 도암리는 폐기된 송국리형주거지의 매몰퇴적토상에 원형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의 노지가 조사된 사례로서 두 집단은 무관한 관계이지만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이종철 2014: 177)는 판단하에 송국리형문화의 지속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대정Ⅳ 유적은 10기 정도의 주거로 이루어진 소규모 취락인데, 입대목 제의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후기 단계의 무덤 유적은 군산 선제리, 익산 다송리, 익산 오룡리, 전주 여의동(先史), 전주 원만성1, 전주 원장동 유적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식동검과 검과형동기의 조합을 이루는 군산 선제리, 한국식동검과 조문경 또는 정(세)문경의 조합을 이루는 석개토광묘계와 적석목관묘계, 그리고 석곽묘(?)와 토광묘 등 다양한 무덤 유적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기원이나 형성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Ⅲ. 문화적 특징

지금까지 2016년과 2019년에 개최된 학술대회와 2021년까지의 다양한 조사 성과 등을 바탕으로 고고학적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동기시대 제문화의 취락구성이 파악된다.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취락은 전기-중기-후기 단계로 세분된다. 초기 단계는 아직까지 설정할 수 없다. 비록 전주 동산동의 돌대문토기문화가 초기문화에 속하기는 하지만 시기상으로 전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전기 단계에 존재하는 초기문화 전통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초기 단계의 설정은 시기상조이지만, 순창 원촌 유적의 존재와 전주 동산동·담양 태목리 유적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존재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순창 원촌과 전주 동산동 유적의 사이에는 시간성, 문화적 전통성과 변화상이 존재하므로 초기, 초기와 전기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이 앞으로 조사될 여지는 있다.

전기 단계에는 늦은 시기의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미조사), 혼암리유형 또는 혼암리유형 단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 단계는 송국리형문화 단계로 금강 유역권만큼이나 활성화되었으며, S3구역(황방산-전주천-삼천 일원)에서 가장 번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후기 단계는 순수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재지 적응, 송국리형문화의 지속 및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의 융복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다변화된 전기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전기 문화는 미사리유형(돌대문토기 중심)과 가락동유형(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중심)에 집중된 형국이나 가락동유형의 취락들 중에는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복합 단계 또는 혼암리유형 단계(시기)로 볼 수 있는 취락들이 존재한다. 다만, 전주 동산동 취락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의 주거군이었거나 단일 주거로 구성되었다.

미사리유형은 동산동 유적에서 10여 기의 주거군으로 이루어진 (중)소규모 취락을 형성하였다. 전체 취락의 모습은 환상형(環狀形)에 가까운 형태로 완성되었다. 취락이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본디 충적대지 방향으로 뻗어나간 황방산 자락의 최말단 능선 정상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완전한 충적대지라기보다는 거의 평지에 가까운 능선부에 해당한다. 취락의 일정 시점에 독립적인 가락동유형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돌대문토기문화 일환 속에서 취락의 문화변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만경강 유역의 가락동유형은 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구순각목문이 조합된 토기로 대표되며, 위석식노의 부재와 장축 기둥열의 비활성화가 특징이다. 경기·충청 지역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가락동식주거지와는 차이를 보이며, 오히려 역삼동식주거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토광식노

또는 무시설식노가 설치된다. 역삼동식토기와와의 복합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A, Ab, AB 등의 변화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삼동유형은 공열문+구순각목문토기가 대표적인데, 개별 토기는 복합 양상 속에서 확인되지만,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내륙에서의 독자적인 취락은 아직 조사된 바 없다. 이것을 역삼동유형의 부재로 인식하고 가락동유형의 대세로 간주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도 가락동유형 취락에서 나타나는 공열문토기를 역삼동유형 집단과의 교류 또는 문화요소 유입 등으로 해석하고 있어 주변에 또는 조금 더 먼 곳에 역삼동유형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그 정체가 만경강 유역권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조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라 본다. 만경강 하류역 또는 서해안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군산 비응도에서는 역삼동 및 혼암리유형의 편린이 확인되기 때문에 충청 서해안 지역에 번성했던 역삼동유형이 서해안을 따라서 만경강 유역권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B, Ba, BA 등의 변화상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혼암리유형은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다양한 복합 양상인 바, 아직까지 전형적인 고고학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두 문화의 복합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거 내부시설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 형태, 토기 양상 등에서 A와 B의 지속적인 변화, Ab, AB 또는 BA, Ba, C 등의 형태로 시공을 달리 하여 변화한 다양한 결과들이 존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 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경강 유역권의 가락동유형 취락은 대부분 이러한 복합 과정의 취락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첫 단계의 복합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의 변화 과정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락동유형의 토기 양상과 역삼동유형의 주거 내부시설이 조합을 이루는 것은 만경강 유역권의 지역적 특성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3. 요령식동검문화가 확인된다.

만경강 유역권은 한국식동검문화의 번성을 대표하지만, 요령식동검문화의 편린도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요령식동검문화는 지식묘(석곽묘 포함)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송국리형문화와 시기를 같이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요령식동검문화의 흔적들은 대부분 익산 지역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미륵산성 출토 요령식동모(국립전주박물관), 전 익산 출토 요령식동모(원광대학교박물관), 용화산 출토 요령식동검 2점(고려대학교박물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이 알려져 있다(圖 6). 미륵산성 출토품을 제외하면 지표채집이나 구입품에 지나지 않지만, 출토 위치나 지역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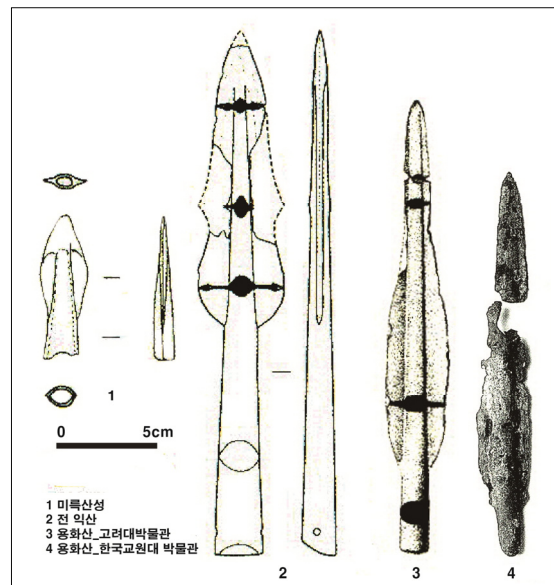


圖 6. 익산 출토 요령식동검문화 관련 유물

에서 유의미한 고고학자료로 평가된다.

이러한 청동유물의 존재는 관련 유적의 존재를 암시해주는데, 지석묘가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익산에서는 지석묘가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옛기록에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¹⁾. 따라서 지석묘 상석이 훼손되었거나 또는 송국리 동검묘와 같은 석관묘 계통이 예상될 수 있다. 또는 미륵산과 용화산 자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평지와 구릉을 입지로 삼지 않는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있겠다. 또는 청동기의 제작이나 문물교류의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으며, 그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유력 집단의 존재 설정은 자연스럽다. 아무튼 이러한 청동기는 시기적으로 지석묘 문화 또는 송국리형문화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익산 지역에 유력한 지석묘 집단이나 송국리형취락의 존재 가능성을 버리지 못하게 한다.

4. 중기 문화의 번성을 배경으로 거점취락과 지역연계망의 존재를 추출할 수 있다.

송국리형문화의 번성은 만경강 유역권의 대표성을 갖는다. 현재까지로는 S3구역의 황방산과 전주천-삼천을 배경으로 점유했던 송국리형취락군을 중심지로 삼을 만하다. 하류역의 충적대지를 배경으로 동산동 거점취락이 형성되었고,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크고 작은 송국리형취락이 점유하였다. 전주천의 지류인 삼천을 따라 역시 다양한 규모의 송국리형취락이 형성됨으로써 남북 방향의 하천을 따라 일방형의 지역연계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圖 7). 이 취락들의 탄소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7~6세기에 집중되고 있다. 다만 만성동·여의동(만성지구) 일원의 취락은 이보다 약간 이르거나 늦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기적인 편차가 어느 정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취락 내부에는 송국리형 묘제와 소수의 지석묘가 축조되었으며, 황방산 일원과 삼천의 상류권에는 다수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어 사회적 위계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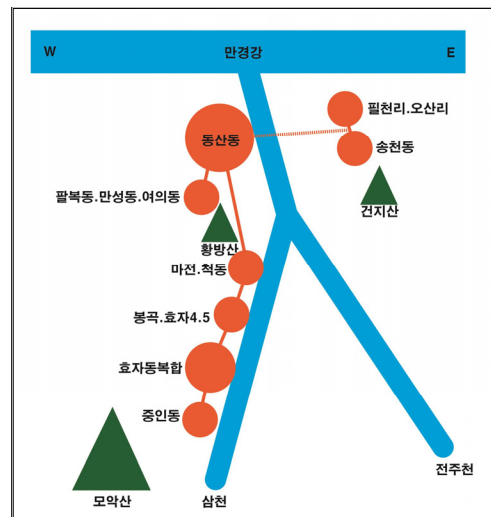


圖 7. 전주천 유역 거점취락과 일반취락의 일방형 지역연계망 도식

1) 고려시대 이규보(1168~1241)가 쓴 『동국이상국집』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에는 11월 기사일(己巳日)에 마령→진안→운제→고산→예양(禮陽)→낭산(朗山)→금마(金馬)→이성(伊城)을 유람하던 중 낭산(익산 낭산면)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금마로 향하던 과정에 ‘지석(支石)’을 구경한 것을 기록해놓았다. 따라서 미륵산 서남쪽(낭산면-삼기면-금마면 사이) 어딘가에 지석묘(탁자석 또는 지석이 눈에 띄는 기반석)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익산 지역은 지석묘의 부재라기보다는 훼손 등으로 상석이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륵산 주변에 분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미륵산 주변에서 발견된 요령식동모와 요령식동검의 존재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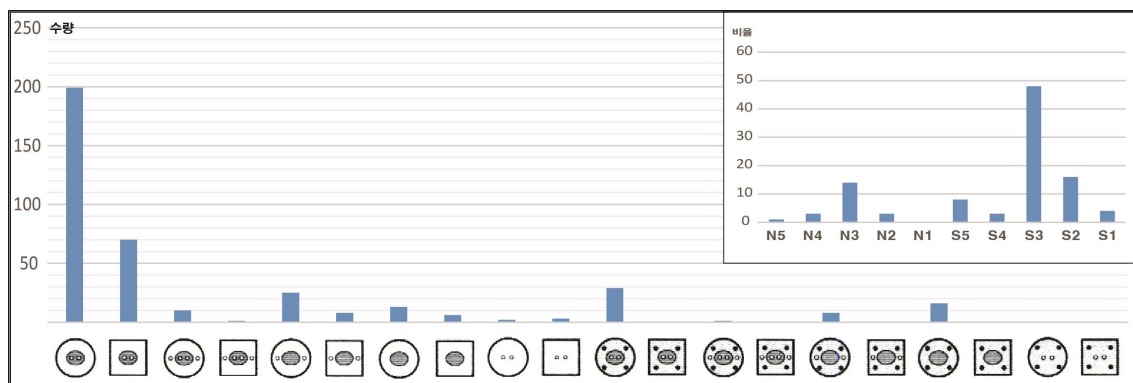


圖 8. 만경강 유역권의 송국리형주거 현황

금강 유역권의 중추적인 구역 중의 하나인 만경강 유역권에서는 59개 유적 395기의 송국리형주거가 집계되었다. 이들 가운데 평면 형태를 알 수 있는 391를 대상으로 주거 유형의 현황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금강의 지류인 산북천 일원에도 많은 수의 송국리형취락이 분포하고 있으나 논산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만경강 유역권에 입지하는 다양한 송국리형취락의 전체 양상과 구역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圖 8·圖 9).

만경강 유역권에서는 원형의 내주공식 주거(A①)가 압도적으로 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방형의 내주공식 주거가 뒤를 따르고 있으나 원형의 35%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주거의 원형과 방형의 비율이 71:29로 집계됨에 따라 원형 주거의 압도적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형의 4주+내주공식(A②), 원형의 외주공식(C①) 주거가 상대적으로 많이 축조되었다. 특히 4주형의 주거는 모두 원형에서만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주거 양상은 금강 유역권의 현황(이종철 2015a: 78-80)과 거의 차이가 없다.

앞에서 만경강 유역권의 공간적 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남북으로 각각 5개 구역으로 구분한 바 있다. 동쪽의 E구역(고산권)은 취락 조사 건이 없어 생략한다. 각 구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가장 많은 수의 주거와 가장 다양한 주거 형태가 확인된 곳은 전주 황방산 일원인 S3구역이다. ②취락 조사 보고가 없는 곳은 N1구역(봉동권)이며, 가장 적은 수량(또는 비율)은 N5구역(군산권)이다. ③주거 형태의 다양성은 S3·S2구역에서, 한 주거 형태(○A①)만 집중되는 단일성은 S1구역(용진권)에서 볼 수 있다. ④구역별 주거의 비율은 S3(황방산권)>S2(건지산권)>N3(익산권)>S5(김제권) 순이며, S1·S4·N2·N4 구역은 거의 비등하게 소규모로 나타났다. ⑤원형의 내주공식 주거(A①)는 모든 구역에서 압도적이거나 우월한 양상이지만, 유일하게 N4구역(서수-황등권)에서만 방형의 내주공식 주거가 우위를 점한다. 다만 수량이 적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⑥4주형의 주거는 S3구역(황방산권)에서 가장 활성화되었으며, 다음으로 S2구역(건지산권)이다. 나머지 구역에서는 거의 없거나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만경강 북쪽에서는 N3구역(익산권)에서만 확인되었다. ⑦내외주공식(B), 외주공식(C), 타원형구덩이식(D)이 상대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곳은 S3구역(황방산권)이다. 이러한 분석은 전주천-황방산-삼천을 배경으로 하는 S3구역이 만경강 유역권의 송국리형문화 중심지였을 가

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송국리형 취락을 다루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은 앞으로 검토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송국리형주거의 내부구조에 근거한 기원에 대한 판단이다. 만경강 유역권의 송국리형문화는 전기 문화와의 문화적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기의 옹관이 송국리형 묘제와 혼재하고, 장동Ⅱ 유적의 34호 주거지가 송국리형주거지의 시원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 송국리형문화와 역삼동유형 간 접촉을 상정하는 견해도 있다(김승욱 2016: 45). 그러나 장동Ⅱ 34호는 방형의 소위 ‘동천동식주거’로 타원형구덩이가 생략되고 2개의 중심기둥만 설치되는 주거 형태(발표자의 E형)이다. 대구 동천동에서 대단위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송국리형주거의 변화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발표자(2002: 22)는 이미 이러한 주거 형태가 송국리형문화 중심권(금강유역권)에서 김천-구미로 통하는 문화적 흐름 속에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강 유역권은 송국리형주거의 모든 유형이 발견되고 있어 가장 다양한 주거문화를 이루는 곳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랜 전통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기원지이자 중심권(이종철 2002)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4호와 같은 주거지를 송국리형주거지의 시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재호(부산대학교박물관 1995: 278)가 검단리 69호를 통해, 이형원(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181)이 반송리식주거지를 통해 전기문화에서 송국리형주거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논리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두 주거지는 송국리형문화 주변부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의 주거지로서 문화변동과정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은 유행을 타고 있는 서울의 S문화요소가 철이 지난 뒤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이나 시골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시간적으로는 늦은 시공간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더 오래돼 보이는 전통 때문에 S문화요소가 더 이른 시기의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 뿐이다. 정작 제시된 반송리식주거지의 탄소연대가 송국리형문화의 이른 시기에 미치지 못함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이종철 2015a: 179)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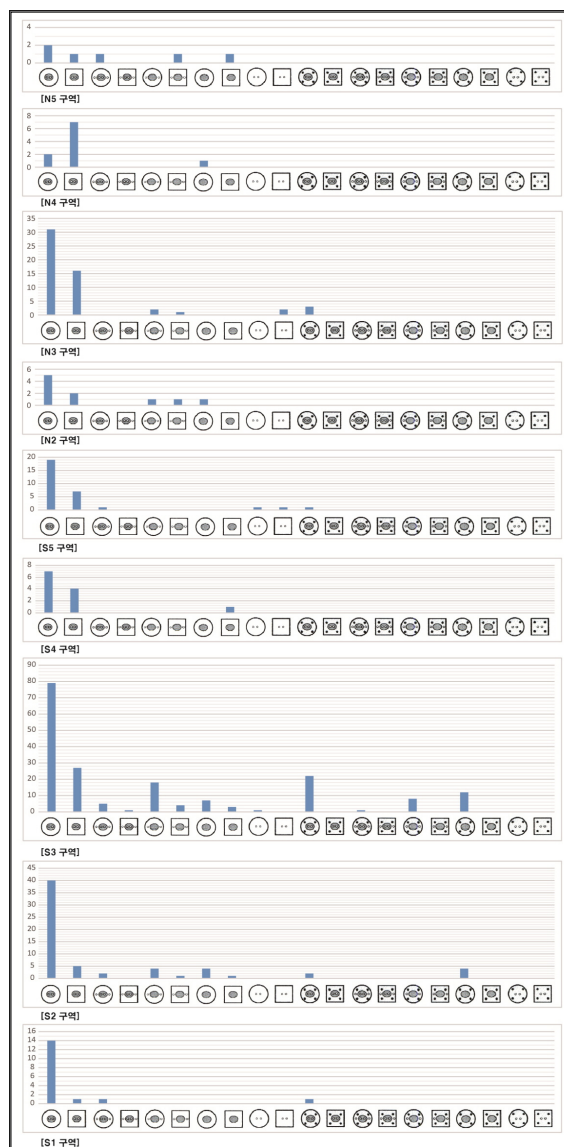


圖 9. 만경강 유역권 구역별 송국리형주거 현황

둘째, 송국리형주거의 방형과 원형에 대한 시간성 문제이다. 송국리형취락에서 휴암리식과 송국리식에 대한 구분과 서열을 중시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는 휴암리식이 중첩관계상 송국리식보다 빨라 전기→중기로의 계기적 변천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고고학 자료가 된다. 후자는 중첩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자체가 일정한 시기나 획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거의 축조와 폐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고고학적 매락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두 주거지가 함께 조사된 동산동 취락에서 중첩관계상 방형계(휴암리식)가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탄소연대상 시기차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것은 중첩에 따른 시간차는 존재할지라도 ①동일한 문화집단으로서 방형과 원형이라는 주거형태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의 여부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②방형계 주거의 점유 시기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지점에 존재했을 원형계 주거민들의 여정이 갖는 시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5. 송국리형 묘제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조성되었으나 지식묘는 아직까지 수수께끼다.

송국리형문화의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지식묘와 송국리형 묘제의 분포 차이 및 관계성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지식묘와 송국리형 묘제의 혼합 양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적었고, 송국리형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입체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식묘와의 관계가 단절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진안 여의곡 유적의 조사 이후 장흥 갈두·신평 등 대규모 취락 유적에서 지식묘가 주요제로 작동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기적인 다양성 속에서 호남 지역의 지식묘가 송국리형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이영문 2013: 65).

하지만 지식묘와 송국리형문화의 관련성은 이미 영암 장천리 유적의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었고(최성락 1986), 두 문화의 시·공간성에 동일한 물질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들어 호남 지역의 지식묘와 송국리형문화의 친연성이 거론되어 왔다(이종철 2002: 24). 다만 두 문화의 문화접촉에 의한 복합화 양상인지 아니면 동일 문화권의 한 요소로 작용된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선행의 무덤 집계(2019)와 지역적 분포의 해석에 대해 발표자는 다른 각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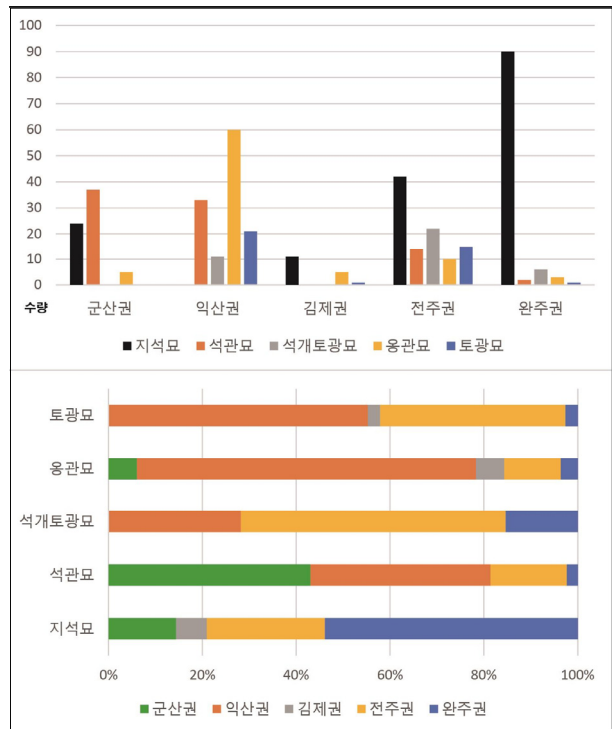


圖 10.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무덤 현황

접근해볼 수 있었다. 지식묘를 반영하여 그림으로 다시 나타내면 전혀 다른 해석을 도출해낼 수 있다(圖 10)²⁾. [圖 10]은 만경강 유역의 지역권별 무덤 현황과 각 무덤의 지역적인 비율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량이 적은 것도 있어 비교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 자료 축적을 기대한다. 먼저 ①지식묘는 서쪽(해안)에서 동쪽(내륙)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②석관묘는 서쪽(해안)에서 동쪽(내륙)으로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인다. 지식묘와는 정반대 양상이어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상으로 볼 수 있다. ③석개토광묘는 익산, 전주, 완주에 집중되는 경향이나 전주권에 좀 더 밀집하는 양상이다. ④옹관묘는 익산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무덤으로 대표성을 갖는다. ⑤토광묘는 익산권과 전주권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⑥군산권은 지식묘와 석관묘가 특징이다. ⑦익산권은 지식묘가 전혀 보고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석관묘와 옹관묘의 높은 비중 속에서 모든 송국리형 묘제가 확인된다. ⑧김제권은 가장 적은 지식묘와 가장 빈약한 송국리형 묘제가 특징이다. ⑨전주권은 지식묘의 우세 속에서 송국리형 묘제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⑩완주권은 송국리형 묘제가 매우 적은 반면 지식묘의 수량이 압도적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금강 유역권이라고 하여 송국리형 묘제의 우세와 지식묘의 열세 또는 배타적 관계성이 강조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지식묘와 송국리형 묘제의 분포 및 혼합 양상의 관계는 국지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이다. 확연하게 대비되는 익산권과 전주권은 이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圖 10). 그렇다면 익산권이 만경강 유역권의 중심지 또는 문화 형성지인가? 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하나는 그렇다 이다. 이 답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산동과 같은 전통성과 규모를 겸비한 취락뿐만 아니라 송국리와 같은 이른 시기의 취락군과 조합을 이루어야 하고 무덤들의 세트관계가 비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이다. 옹관묘에 편중된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전주권(S3·S2구역 일원)에서 보이는 무덤들의 비등한 관계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다(圖 10).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심권이라고 하더라도 무덤들이 세트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축조되기도 하며 지식묘와 조합관계를 이루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식묘가 송국리형문화의 한 요소로 언제부터 작동하고 있었는지는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고, 송국리형문화 집단과는 다른 토착집단의 문화요소로서의 지식묘와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역시 가려낼 필요가 있다.

한편 동산동 취락의 주요 무덤이 황방산 일원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지식묘라면,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의 거리는 대략 2~3km에 해당한다. 즉 취락 내에 존재하는 매장영역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락과 일정 거리를 둔 지점에 매장영역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아마도 주어진 자연자원을 배경으로 취락 구성원의 노동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특정 장소를 조상신의 신성한 구역으로 설정했던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만경강유역권에서 보고된 지식묘들이 대부분 야산쪽에 밀집하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아닐까 한다. 앞으로 완주권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2) 지식묘의 발굴조사가 극히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일단 청동기시대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황방산 일원에 분포하는 지식묘들이 송국리형취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이종철·정다운 2020)에 근거하여 만경강 유역권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지식묘를 송국리형문화의 전개와 변천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산동 취락에는 주목할 만한 매장영역이 존재한다. 옹관묘군과 토광묘군이 하나의 매장영역을 이루는 공간인데, 옹관묘의 시기성에 대한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산동 취락의 매장영역은 유력자로 추정되는 지석묘의 영역과 토광묘+옹관묘가 조합을 이루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매장영역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조성되었다(圖 4, 圖 5). 그리고 다른 주요 매장지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종철 2021: 41).

옹관묘는 직립구연호를 활용한 것이어서 전기 단계로 파악하기도 하지만(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취락 구성과 유구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송국리형취락 단계로 보기도 한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5, 이종철·정다운 2020). 이 옹관묘가 전기 단계의 무덤이라면, 동산동 전기 취락 중 돌대문토기 단계의 주거민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옹관으로 사용된 직립구연호는 돌대문토기 단계의 문화요소인가? 그런데 왜 주거지들에서는 이와 같은 토기가 전혀 보이지 않을까? 그럼 돌대문토기문화와 구분되는 가락동유형으로 설정되는 몇몇 주거가 옹관묘의 주체인가? 그럴 가능성 역시 적다. 이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 준비되지 못하거나 옹관묘(직립구연호)와 전기 취락의 조합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동산동 취락의 옹관묘(직립구연호)를 전기 단계에 묶어두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발표자는 동산동 옹관묘의 시기성에 대해 이미 제시한 바 있지만(이종철·정다운 2020: 333-334), 문화접변적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동산동 취락이 만경강 유역권의 거점취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옹관묘군을 ①송국리형취락 단계로 보는 점, ②토광묘군과 동일한 매장영역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는 점은 변함이 없다. 여기에 ③송국리형취락의 구성원들 가운데 전기 취락 소속원이 어떤 식으로든 공생했거나 상호교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가하고 싶다. 이는 두 문화의 복합이 만들어진 결과로 이해했던 것(이종철 2015a)에서 좀 더 나아간 해석이다. 만약 그들이 존재했다면, 구분이 나 구별(차별)의 관계였다기보다는 취락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자격이었다고 판단된다.

동산동의 돌대문토기문화 주거들에서 공열토기(1-2호), 송국리식토기(26호·71호), 삼각형석도(71호), 일단정석축(16호), 유구석부(70호), 말각평저 병형(77호)과 완형 적색마연토기 등이, 송국리형주거에서 삼각만입석축(17호), 직립구연호(3호·52호·63호·마2호·마3호) 등이 출토된다. 송국리형주거에서는 원형과 방형 모두에서 확인되며, 출토 빈도 역시 비슷하다. 특히 직립구연호는 수혈에서 출토빈도가 높은데, 구순각목문발과 삼각형석도(95호)와 공반하거나 돌대문토기문화 주거(56호)→송국리형주거(57호)→수혈(104호)의 중첩관계 속에서 수혈에서는 직립구연호가 내만구연발과 공반한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직립구연호 자체는 돌대문토기 집단(취락)보다는 송국리형취락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직립구연호가 공반하는 주변의 송국리형주거는 완주 상운리 라-4호(○A①), 완주 신평 가-2호(□A①), 완주 옥정 B-4호(○A①), 전주 효자5 B-4호(○D②), 익산 모현동 7호(□A①), 익산 영등동 I-14호(○A①), 김제 수록리 5호(□A①)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결국 동산동 송국리형취락의 형성 과정에는 늦은 시기의 전기 취락 또는 전기 문화 집단과의 상호 문물·인적교류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동산동 자체 내에서 또는 S3구역 일원에서 일어나 수 있는 교류의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동산동의 모든 옹관묘가 전기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6. 취락의례의 형성과 전승 관계가 밝혀지다.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구암리 제의유구는 구릉의 정상부에 개구부가 있는 방형의 환구와 중앙부에 조성된 할석과 소토층이 반복적으로 퇴적되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수혈로 구성된다. 제의 유구는 가락동유형의 주거들과 조합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환구를 파괴하고 축조된 6호 주거지가 과연 다른 주거지들과 시기를 달리할 만큼 서로 다른 집단의 주민이었는가 또 6호 주거지가 조성될 때 모든 환구가 폐기된 상태였을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특히 6호 주거지에서만 유일하게 석검(2점 이상)이 출토되었고, 개구부에 근접하여 조성된 점은 제의유구와의 관련성을 시사해주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또 6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2개의 돌기형 꼭지가 붙은 발형토기(172)가 3호(54), 4호(81·82), 4-1호(127)에서 출토되는 점도 토기 제작과 전통성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단서이다. 아울러 4-1호 주거지는 공열문+구순각목문토기와 공반한다(圖 11). 따라서 1단계와 2단계를 단절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환구의 폐기가 곧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의례의 담당 집단을 1~4호 주거민으로 한정하는 것(김규정 2014: 30)은 온전한 해석으로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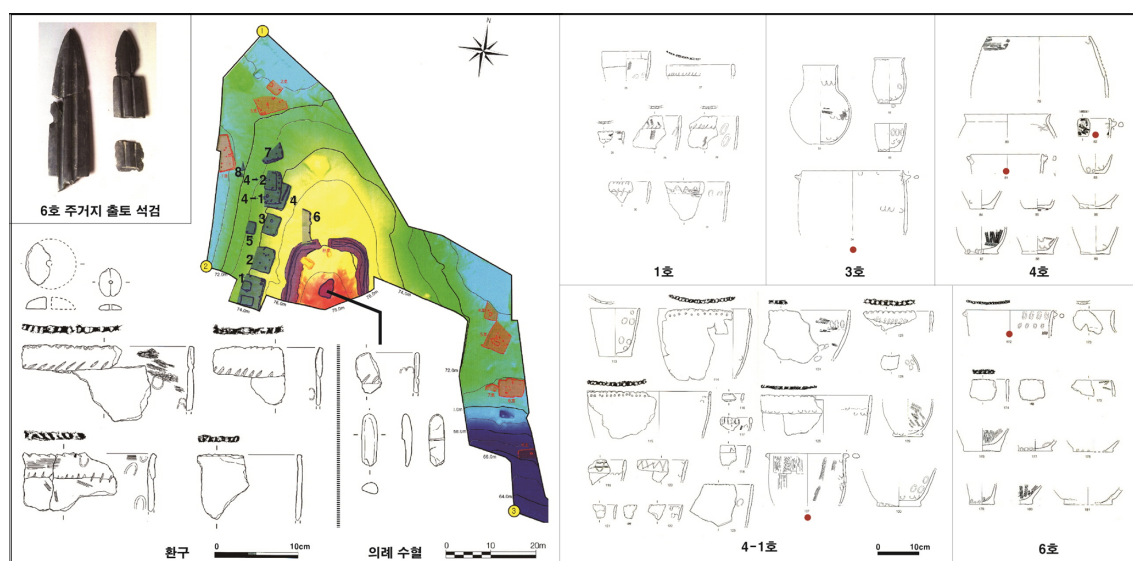


圖 11. 완주 구암리 의례유구와 출토유물 비교

동일 지점에서 반복되는 주거지의 중첩은 시기적인 지속성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지들과의 중첩을 이루는 환구와 중앙부 수혈의 조합은 처음에는 환구를 둘러 독립적이면서 경계의 상징성을 높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계의 상징성은 불필요했거나 일부가 매몰되고 폐기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암리 취락의 제의 핵심은 마을이 형성된 산정부(山頂部)에 구덩이를 파고 할석과 소토층이 반복되는 (의례)행위에 있다. 수혈 내 할석과 소토층의 존재는 의례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다. 할석을 깔고 불을 피웠거나 불을 피운 상태에서 할석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 그럼 불을 피웠을 때 환구 내부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환구가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짓는 경계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부 진입이 가능한 자는 의례를 주재하는 유력자 또는 유력자와 그를 보좌하는 일정 수의 사람들일 수 있으며, 나머지(취락 구성원)는 환구 밖에서 조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취락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제의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의 수혈과 환구 사이는 각각 5m 내외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캠프파이어(campfire)와 같은 형태로 취락의 다수가 공간을 활용했을 수 있다. 또는 일정 부분은 환구 밖에서 조유했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공동체적 행위는 구암리 취락의 전기간에 걸쳐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동기시대 중기인 송국리형취락에서도 수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제의가 확인된다. 전주 동산동 취락이 대표적이다. 동산동 취락에는 직경 50m 정도의 중앙 광장이 존재하며, 북쪽과 남쪽에 각각 단위취락이 구성되어 있다. 광장의 중앙부에는 의례유구로 보고된 5개의 연속된 수혈들이 존재하는데, 구암리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석재와 목탄이 무문토기 편, 적색마연토기, 석검편, 석촉, 석부, 석창, 석도 편, 갈판, 갈돌, 지석 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5회 이상의 의례행위 일환인 인위적인 폐기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동산동 취락의 제의는 광장에서 집체적 성격의 유희체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취락과 북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을 장려하여 우열을 가리게 하거나 결속을 강화하는 통합적 성격의 의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의용 수혈에서 나타나는 목탄과 석재들은 불과 연관되는 것들로 구암리의 제의와 유사할 수 있다. 다만 의식 후 폐기와 매몰이 시기를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던 구암리와는 차이가 있다. 결국 동산동 취락의 의례는 ①공동체적 의식의 일환인 점, ②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된 점, ③제의에 활용된 또는 제의를 위해 생활용구들을 폐기함으로써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점에서 송국리형문화의 제의를 대표하는 사례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전주 대정Ⅳ 유적에서는 입대목 제의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견해(이종철 2020)가 최근에 제시되었다. 대정Ⅳ 유적은 9기의 장방형계 주거가 환상배치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광장을 형성하는 취락으로, 광장의 한 쪽에 입목수혈이 조사됨으로써 입대목 제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입목수혈은 공간적 연계성·면적성과 수혈의 독립성·특수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2개의 장축노가 설치된 주거지들에서는 송국리식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조합식우각형과수부토기 등이 출토됨에 따라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복합 양상을 보이는 단계임이 밝혀졌다(圖 12). 이



圖 12. 전주 대정Ⅳ 취락의 입대목 제의 상상도
(그림 필자)

를 통해 진안 여의곡, 김해 울하리, 고흥 한천리 등에서 제기된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입대목 제의가 청동기시대 후기까지 전승되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특히 송국리형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복합화가 이루어진 취락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입대목 제의 유적이라는 고고학적 의의를 갖는다.

7. 후기 취락의 형성과 발전 양상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청동기시대 후기 단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송국리형주거, 송국리형주거와 송국리식토기+원형 점토대토기 복합, 방형의 원형점토대토기 출토 주거, 방형 주거에 원형점토대토기+송국리식토기 복합 등이 확인되는 시기이다. 만경강 유역권에서는 소수의 유적에서 이와 같은 양상만 나타나고 있어, 후기 취락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아직까지 무리이다.

주거 밀도가 낮다는 것은 대규모 취락이 존재하지 않거나 조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인데, 소규모의 작은 취락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소규모 집단으로 분화된 소단위 취락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에 좀 더 가깝다. 또는 대규모 이주 집단의 거점은 다른 곳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거점을 형성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금의 상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입지에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은 후기 취락의 형성과 발전을 설정하고 구명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환경에 대한 적응이 집체적 성격이 아니라 분화적 성격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0기 정도의 대정Ⅳ 취락에서 거점취락과 같은 대규모 마을에서나 발견되는 입대목 제의가 존재하는 것을 보더라도 분화의 정도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권역에서 조사된 수 많은 토광묘 집단의 취락을 아직까지 특정할 수 없는 현실은 집체적 성격의 취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기원전 5~3세기 동안 북방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점토대토기문화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그 규모와 발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송국리형문화 집단은 모두 절멸했는지? 아니면 기층세력으로 잔존하여 한(韓)의 시기까지 토착집단으로서의 전통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IV. 맺음말

본 발표는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발표자의 문제 제기와 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을 정리해본 것이다. 다만 정치, 사회, 경제, 기술 등 중추적인 항목별 검토는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고고학자료의 한계에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발표자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만경강 유역권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다음과 같이 압축정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그 해상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1. 청동기시대 전기-중기-후기 체계를 온전히 이룬다는 점이다. 초기 단계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지만, 순창 원촌과 전주 동산동의 사례를 통해 하천과 충적대지를 배경으로 하는 곳에서 조사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2.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늦은 시기의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혼암리유형 단계(시기) 유적이 존재하는 반면, 온전한 역삼동유형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조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유형들은 대부분 문화변동과정을 거쳤거나 과정 중에 있는 혼합·복합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편년 체계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문화변동과정에 대한 해상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타당한 해석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취락의 규모와 분포는 대부분 소규모로 점상분포를 이룬다는 점에서 수준 이상의 취락체제로 발전했다고는 볼 수 없다.
3. 전기~중기 단계 어느 시점에는 요령식동검문화가 존재했거나 그러한 문화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유력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익산권에 집중되어 있다.
4. 중기 단계에는 전주천-황방산-삼천을 배경으로 하는 S3구역이 중추적인 문화중심지로 성장하였고, 청동기시대 기간 동안 가장 번성한 시공간적 특성을 가진다. 거점취락의 존재와 지역연계망 구축, 지석묘와 송국리형 묘제의 다양한 조합 관계, 전기 문화 집단 및 문물을 취락 구성요소로 흡수, 체계적인 취락설계와 사회적 위계체계 형성 등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색들은 만경강 유역권에서 청동기시대 문화를 별도로 이해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5. 송국리형 묘제와 지석묘의 상호관계는 중심과 주변의 관계일 수도 있었지만, 세트와 개별적(또는 선택적) 관계의 국지적인 양상일 수도 있다. 부여 송국리 일원과 그 주변의 관계가 익산권과 전주권의 관계와 같을 수 있으며, 영산강 유역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고고학적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화적 파급에 따른 중심과 주변의 광의적 관점에서는 순수요소들의 감소와 선택적 존재에 기반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6. 후기 단계는 소수의 유적을 통해 취락의 존재는 확인되었으나 대규모이거나 체계적인 형태의 취락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다. 숫적으로 적기 때문에 취락 자체가 적었거나 아직 조사되지 않은 유적 또는 완전히 새로운 입지에 조성된 취락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7. 논이나 밭과 같은 농경의 적극적인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기별로 나타나는 석도·갈판과 갈돌 등을 통해 농경이 행해졌을 가능성은 높다. 다량의 어망추, 석촉 등을 통해 어로·수렵·채집의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취락들 가운데 중상위 규모/체제의 취락들에서는 집체적 공동체의식의 제의행위가가 존재했다. 전기에는 환구와 수혈을, 중기에는 중앙 광장에 수혈을 설치해서 불과 활석을 활용하여 제의가 이루어졌다. 중기 단계의 동부 산악지대에서는 입대목 제의가 존재했는데, 이러한 문화 전통을 이어받은 후기단계 (중)소규모의 취락에서 계속 전승되고 있었다.

■ 참고문헌 ■

- 『東國李相國集』卷23「南行月日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김규정, 2014,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례」, 『호남지역 선사와 고대의 제사』, 제22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김규정, 2016, 「전북혁신도시 일대 청동기시대 취락」,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 혁신도시』, 제24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金承玉, 2001, 「錦江流域 松菊里型 墓制의 研究」, 『韓國考古學報』 45, 韓國考古學會.
- 김승옥, 2016, 「전북혁신도시 부지 내 선사문화의 성격과 특징」,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 혁신도시』, 제24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朴淳發, 1993, 「우리나라 初期鐵器文化의 展開過程에 對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3,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 朴辰一, 2007, 「粘土帶土器, 그리고 靑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 『韓國靑銅器學報』 創刊號, 韓國靑銅器學會.
- 李健茂 1994, 「韓國式 銅劍文化의 性格-成立背景에 對하여-」, 『東아시아의 靑銅器文化-遺物을 通하여 본 社會相-』,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 이영문, 2013,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사 성과와 연구 과제」, 『호남고고학회 20년, 그 회고와 전망』, 제21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李宗哲, 2000, 『南韓地域 松菊里型 住居址에 對한 一考察』, 全北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 이종철, 2002, 「湖南地域 松菊里型 住居文化」, 『韓國上古史學報』 第36號, 韓國上古史學會.
- 이종철, 2014, 「취락의 지역상-호남·제주 지역」, 『취락: 청동기시대의 고고학3』, 서경문화사.
- 李宗哲, 2015a, 『松菊里型文化의 聚落體制와 發展』,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이종철, 2015b, 「섬진강 본류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분포와 특징」, 『先史와 古代』 46, 韓國古代學會.
- 이종철, 2019, 「청동기시대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와 사회발전단계」,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정치·사회 변동』, 국립청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 이종철, 2020, 「만경강유역 송국리문화와 점토대토기문화의 공존과 변화에 대한 토론」, 『철기문화 시기의 분묘와 매장』,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종철, 2021,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와 사회발전 양상」, 『韓國靑銅器學報』 第二十八號, 韓國靑銅器學會.
- 이종철·정다운, 2020, 「전주 황방산 일원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 현황과 특징」,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 유적 일원 유적 분포 현황 조사 보고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이창희, 2010, 「점토대토기의 실연대-세형동검문화의 성립과 철기의 출현 연대-」, 『文化財』 제43권·제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李清圭, 2000, 「遼寧 本溪縣 上堡村 출토 銅劍과 土器에 대하여」, 『考古歷史學志』 16, 東亞大學校博物館.
- 李亨源, 2005, 「松菊里類型과 水石里類型的 接觸樣相 -中西部地域 住居遺蹟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12, 湖西考古學會.
- 李亨源, 2011, 「中部地域 粘土帶土器文化的 時間性과 空間性」, 『湖西考古學』 24, 湖西考古學會.
- 李亨源, 2016, 「忠清西海岸地域의 粘土帶土器文化 流入과 文化接變」, 『湖西考古學』 34, 湖西考古學會.
- 이홍중, 2006, 「무문토기와 야요이 토기의 실연대」, 『한국고고학보』 60, 한국고고학회.
- 中村大介, 2008,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編年과 年代」, 『한국고고학보』 68, 한국고고학회.
- 진영민, 2016, 「粘土帶土器文化的 韓半島 開始年代 再考」, 『韓國青銅器學報』 第十八號, 韓國青銅器學會.
- 천선행, 2019,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중기 취락 조사성과」, 『만경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 국립전주박물관·한국청동기학회.
- 崔盛洛, 1986, 『靈巖 長川里 住居址 I·II』, 木浦大學校博物館.
- 최완규, 2016, 「전북 혁신도시의 역사와 문화」,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 혁신도시』, 제24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한국청동기학회, 2019, 『만경강유역의 고고학적 성과』, 국립전주박물관 완주 지역특별전 기념 공동 학술대회.
- 호남고고학회, 2016, 『고고학으로 밝혀 낸 전북 혁신도시』, 제24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 홍밤음,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 『湖南考古學報』 36, 湖南考古學會.
- 군산대학교박물관, 2013, 『완주 구암리 유적』.
-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蔚山 檢丹里 마을 遺蹟』.
- 전북문화재연구원, 2015, 『全州 東山洞 青銅器時代 聚落』 3권.
- 한신대학교박물관, 2007, 『華城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
- 호남문화재연구원, 2015, 『全州 東山洞遺蹟Ⅱ-나·다·라·마·저습지-』.
- ※단순 언급의 보고서는 생략함.